

“韓, 독일 수준 특허 보호 땐 2만2000개 일자리 창출”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특허 보호수준에 고용 크게 차이
“특허개발 만큼 보호조치 중요
중소 기술탈취 대책 강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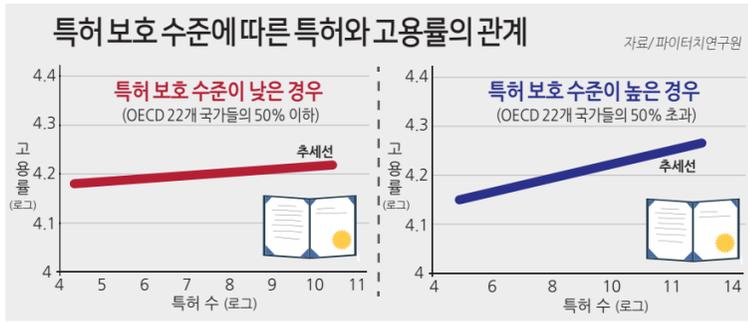
현재 23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 수준’을 4위인 독일 수준까지 끌어올릴 경우 총 2만2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만8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15일 펴낸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에서 나왔다.

각종 방지장치를 활용해 특허 보호 수준을 높이면 특허가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특허 보호 수준이 낮으면 특허가 늘어나도 고용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은 “특허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들의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한다. 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수가 1% 늘면 고용률도 0.03%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미국재산권연대(PRA)의 2018년 기준 자료를 인용한 결과(국제지식재산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보호 수준은 7.87로 25개국 가운데

23위로 나타났다. 그리스(7.77), 리투아니아(7.75)만 우리나라보다 뒤쳐졌다.

보고서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국가인 독일의 보호수준은 9.33으로 4위다. 독일보다 높은 나라는 핀란드(9.75), 미국(9.75) 뿐이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독일과 같은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23위인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 수준을 4위권까지 끌어올렸을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그룹의 연간 공채 규모인 1만명보다 많은 약 1만 8000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일자리는

약 4000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가 증가해도 고용률이 감소한다”며 “그 이유는 특허가 보호되지 않아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특허에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기업이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공하지 않은 OECD 22개 국가(중국, 일본, 한국 제외)만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2개국 중 50% 이하로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은 경우엔 특허와 고용률 간에 뚜렷한 관계가 없었지만 50%를 초과해 높은 경우엔 특허와 고용률이 비례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원측 설명이다.

독일의 경우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특허가 6만3167개에서 6만5965개로 늘고, 동시에 특허 보호 수준이 9.0에서 9.3으로 높아지면서 고용률 역시

73.49%에서 73.79%로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특허 증가에 따라 고용도 늘어나도록 하기위해선 특허 증가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인공지능(AI)의 경우 우리나라 관련 특허수는 2018년 기준 3만8842개로 25개국 중 4위에 해당되지만 특허 보호 수준은 23위에 머물고 있어 AI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개발 확대 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조직 신설

보상업무 실무인력 30명 증원
원활한 보상금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오는 10월말부터 본격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내에 전담 조직을 꾸리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 내에 정부의 방역 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한다. 또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 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도 본부 8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22명 등 총 30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꾸린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 대응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희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예정임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도 부처내에 2명 늘린다.

권철승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한다. /김승호 기자

창진원 “스타트업 생태계 핵심기관 도약”

2030 비전 및 CI 선포식

새 비전 ‘미래 여는 창업진흥 파트너’



창업진흥원이 K-스타트업 생태계 핵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30 비전’을 선포하고 CI도 새롭게 선보였다.

창진원은 김용문 원장 취임 이후 기관의 중장기적 혁신과 도약 의지를 다지는 ‘2030 비전 및 CI 선포식’을 15일 세종 본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진원은 창업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코로나 시대 이후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해 ‘국민과 함께 창업의 미래를 여는 창업진흥 파트너’라는 비전과 함께 경영목표부터 전략방향까지 새롭게 설정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로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기업 생존율 제고 ▲혁신분야 창업지원 확대 ▲ESG 경영도입 확대를 내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방향으로는

한국형 창업생태계 고도화, 상생협력 성공창업 실현, 지속가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창의혁신 스마트 경영 실현을 제시하며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로 선보인 CI(사진)는 기존 CI의 무거움 느낌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K-스타트업 생태계 핵심기관으로서의 기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김용문 원장은 “창업진흥원이 2030 중장기 미래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만큼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창업정책 기조에 부응해 세계적인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문화산업분야 사업자, 폐업 신고기한 확대

중기 옴부즈만 7일→30일로 연장

인쇄, 출판,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다 폐업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신고기간이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문화산업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했고, 그 결과

문체부는 ▲음악 ▲게임 ▲인쇄 ▲출판 분야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승호 기자

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면서 폐업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문화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문화산업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했고, 그 결과 문체부는 ▲음악 ▲게임 ▲인쇄 ▲출판 분야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승호 기자

KCC 목재 보호용 페인트 출시

KCC가 목재 보호용 기능성 페인트 제품인 ‘숲으로 셀프 스테인’을 출시하며 건축용 인테리어 페인트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15일 KCC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숲으로 셀프 스테인은 프리미엄 목재 보호용 기능성 페인트로 도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칠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의성을 강화했다. 마감이 되지 않은 목재위에 칠하면 무늬결과 질감을 돋보이게 하며 오래도록 자연스런 모습을 유지해준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중소 경쟁제품’ 추천품목 지정 예고

30일 222개 제품 추천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추천품목을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김승호 기자

올해 4월까지 총 234개 제품, 684개 세부품목이 신청됐으며 품목공개 공청회→이의신청 접수→조정협의를 이어 오는 24일까지 추천품목을 예고 한 뒤 30일에 222개 제품, 648개 세부품목을 추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입원 환자가 여성 환자 성폭행... 병원은 CCTV 삭제
- ▲ 저출산위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주택·양육 지원 확대”



- ▲ 자영업자들 집단 극단적 선택... “올해만 20명 이상”
- ▲ ‘삼바 횡령 혐의’ 김태한 “기소 납득 안돼... 정당 보상”



- ▲ 2주간 50대 미만 확진자 80% 이상 ‘미접종’... 돌파감염도 늘어 8.6%
- ▲ “정이었다” 유재수, 뇌물 혐의 항소 심도 징역 5년 구형